

UC버클리에 방탄소년단 강좌 개설

UC버클리에 그룹 '방탄소년단' (BTS) 관련 강좌가 생긴다. UC버클리 '디칼'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번 새 학기에 2학점짜리 '차세대 리더: BTS'가 개설된다.

'차세대 리더: BTS' 안내문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한국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을 조명한다"면서 "역사, 예술가적 자질, 철학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 대한 탐험을 시도하게 된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을 확인한 대표적인 보기는 지난해 9월24일 뉴욕 UN 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에서 팀의 대표 연설자로 나서 7분가량 영어로 연설한 RM(25)은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피부색이 무엇이든 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스피크 유어셀프(Speak yourself)'라는 타이틀로 캠페인처럼 번졌다. 여러 나라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다양한 인종들



▲ 지난 5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들은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행한 연설(왼쪽) 영상을 본 후 함께 찍은 사진을 수업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다.(오른쪽)

이 'Speak yourself' 앞에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미 방탄소년단이 일으킨 현상을 질 들뢰즈와 발터 벤야민의 철학 개념과 예술이론으로 풀어낸 책 'BTS 예술혁명 : 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 (지은이 이지영)가 출간되는 등 방탄소년단을 학술적,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디칼'에는 '차세대 리더: BTS' 외에 한국 관련 강좌로 '현대 한국 영화 담론'로 개설됐다.

리암 니슨 "흑인 죽이고 싶었다" 발언 해명

"흑인을 죽이고 싶었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배우 리암 니슨(67, 사진)이 해명에 나섰다.



리암 니슨은 5일 ABC방송 간판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에 출연해 "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그 일은 40년 전의 일이다."고 말했다.

리암 니슨은 지난 4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무고한 흑인을 죽이고 싶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인종차별 논란이 들불처럼 번졌다.

리암 니슨은 "수년 전 지인이 흑인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걸 알게 됐다. 굉장히 화가 나서 곤봉을 들고 거리에 나가 누군가 마주치길 기다렸다. '흑인'(black bastard)이 내게 덤벼들기를 원했다."고 했다.

니슨은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그 사건은 매우 충

격적이었으며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며 "성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하루 두 시간의 파워 워킹과 함께 두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가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 친구가 백인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백인 남성을 찾았을 것"이라면서 "난 그 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 사회는 인종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더 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일랜드인, 스코틀랜드인, 리투아니아인에게 강간을 당했어도 나는 똑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며 "난 단지 친구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리암 니슨은 이 발언 논란으로 신작 '콜드 추이스'(Cold Pursuit) 레드카펫 행사 등 관련 홍보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콘, 첫 미국 공연 3월 'SXSW' 무대 장식

그룹 아이콘이 오는 3월 미국 음악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콘은 오는 3월 13일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Austin City Limits Live at the Moody Theater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음악페스티벌 중 하나인 '사우스바 이사우스웨스트(SXSW)'에 참여해 'SXSW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무대에 한국 대표로 올라 피날레를 장식한다.

미국 빌보드도 아이콘의 SXSW 참여 소식을 전했다.

빌보드는 "아이콘이 2015년 데뷔 이후 첫 미국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콘은 작년 '사랑을 했다', '죽겠다', '이별길' 등으로 가장 성공적인 해를 보냈다."고 집중 조명했다.

1987년 시작된 SXSW는 매년 봄 개최되는 영화, 인터랙티브, 음악 페스티벌이자 대형 컨퍼런스다. 50여 개국, 2만여 관계자들과 2,000여 팀의 뮤지션이 참여하는 미국 최대 음악 축제로, 영국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The Great Escape. TGE)'와 프랑스 '미템(MIDEM)'과 함께 세계 3대 음악 마켓 중 하나다.

한편 'SXSW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무대에는 아이콘 이외에 가수 청하, 힙합듀오 엑스엑스엑스(XXX), 포스트록 밴드 잠비나이, EDM 뮤지션 히치하이커, 전자음악가 키라리등도 오른다.

1250호 숫자퍼즐 정답									
5	3	9	7	4	6	2	8	1	
6	1	7	5	8	2	9	4	3	
8	4	2	3	9	1	6	5	7	
7	8	4	1	5	9	3	6	2	
9	5	3	2	6	7	4	1	8	
1	2	6	8	3	4	7	9	5	
2	6	5	9	1	3	8	7	4	
3	9	1	4	7	8	5	2	6	
4	7	8	6	2	5	1	3	9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꽃이 없는 예쁜 꽃의 아픔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필자에게 어느 미인형의 40대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그 여인의 사주(四柱)를 살펴보니 그 여인의 생김새와는 다르게 팔자에 식상(食傷)이 전무하고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니 어차피 일부종사(一夫從事)하기는 어려운 팔자인 것이다. 여인 팔자에 식상(食傷)이 겹으로 드러나지 못한 경우는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官星)을 오래 붙잡아두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 팔자를 보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가 그래도 재물도 있고 평생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는 팔자가 되지만 여인 사주로서는 남모르는 애정의 아픔이 따르는 사주가 됩니다. 특히 배우자 인연에 굴곡이 따르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말을 건네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두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모두 이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팔자가 왜 그런 것이냐고 필자에게 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해준 이야기는 "예쁜 꽃과 나비가 아무리 궁합이 좋다고 해도 꽃이 없는 꽃에는 나비가 오래 머무르지 않는 법입니다. 본인이 타고난 팔자 자체가 여인 사주로서는 꽃이 없는 예쁜 꽃과 같으니 배우자에 해당하는 나비가 오래 머물지 않는 법이지요."라고 답변을 해주었다. 이어서 그 여인이 묻는 말이 "제 팔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해결책이 있나요?"라고 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해준 말은 "아마도 내년에 양띠 남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인연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면 평생 사랑받으면서 해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필자에게 하는 말이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양띠 남자를 만나서 얼마 전부터 사귀고 있는데 궁합이 어떤지요?"라고 묻는다. 필자가 궁합은 일단 합격선이라고 조언해 주었던니 빙긋이 웃으며 기뻐하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